

2023년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로!!

여성노동자 앞장서 차별에 ‘균열’ 을 내자

3월 8일, 빵과 장미를

“ 임금을 인상하라! ”
“ 10시간만 일하자! ”
“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
“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

115년 전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해결, 정치적 권리’ 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투쟁 정신을 물려받아 매년 3.8. 세계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대표적인 구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현실은 백 년 전보다는 낫습니다. 8시간만 일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도 결성할 수 있고, 여성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백 년 전과 지금, 여전한 성차별

하지만 아직도 채용 성차별이 만연하고, 정규직 전환에서 성차별이 발생하고, 일자리 배치에서 성차별이 발생합니다. 승진 기회에서도 성차별 구조가 작동하며, 성별로 인한 임금 격차도 심각합니다. 심지어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함께 단결해 외쳐야 합니다. 3월 8일을 ‘빵과 장미를 받는 날’ 이 아닌, 투쟁의 역사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을 향한 차별에 맞서 싸우고, 구조적인 성차별에 균열을 내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과 가부장제라는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성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함께 나서야 합니다

3.8 전국 노동자 대회로 모이자!

금속노조에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금성차별이 존재하지만 통상적인 관례이므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에 맞서 싸워온 KEC지회, 위장폐업과 공장폐업에 맞서 덴소자본과 싸우고 있는 한국와이퍼분회 등 투쟁현장에 늘 여성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투쟁하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억압과 부조리, 차별에 균열을 냅시다. 평등사회를 위해 함께 선봉에서 투쟁합시다.

대전충북지부 49차 운영위(2월20일)에서 2023년 3.8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서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8일 대회를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전국노동자대회로 확대한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 참가 문의 : 김현이 지부 총무부장

2023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이미 시작된 균열”
달리고 걷고 춤추는 퍼레이드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14시
- 장소 : 서울 (지부 또는 지회로 문의 주시면, 탑승차량 안내합니다.)

